

The·K



Monthly Magazine
September 2017
Vol. 01

CONTENTS

2017 SEPTEMBER VOL.01



SPECIAL THEME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6

여는 글
인생의 선물, 행복

8

Infographic
선생님으로서의 삶, 행복하십니까?

12

Essay
행복한 교사의 길을 위해
박일환 서울 영남중 교사

14

Interview
강진구 대전 꿈나래교육원장
장소영 · 임지훈 인천 강화여중 · 강화중 교사
이숙자 강원 마차고 교사

20

Culture
우리 선생님은 웃음과 칭찬의 미술사

22

아름다운 동행
충남 홍성 만해문학체험관 · 결성향교
이정록 천안 중앙고 교사와 제자들

26

행복 만들기
인천 교사 자전거모임 '해피 투 힐스'

30

먼 나라 교육 편지
모로코에서 다시 찾은 나의 정체성
정혜원 울산 서부초 교사

34

유니클래스
드라이플라워 캘린더 액자

36

마음 연구소
선생님, 우리 애는 공부 시키지 마세요

38

네오필리아
'손 수(手)' 하니 꼼꼼하고 건강하고 레어하다

40

브랜뉴 여행
사람, 신, 예술이 어울려 빛어낸 신비의 섬 '인도네시아'



46
공간 그리고 상상
 공간, 영감(靈感)의 만찬

48
바르게 먹고 잘 사는 법
 환절기, 세상 쉬운 목 관리 방법

50
재테크 팩토리
 저축, 안정적 연금 수령과 목표 자금 마련의 출발점

52
독자 이벤트
 창간 기념 이벤트 · 즉석 당첨 이벤트

54
The-K Focus
 공제회 보험 '교직원라이프'

56
The-K Family
 소피아그린 C.C

60
The-K News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7년 9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김태희 강정구 유현경 이경희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홍진 황원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The-K 매거진>을 내놓으며

폭우와 폭염의 '사나운(暴) 계절이 저만치 물러가고 어느새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맞이합니다. 휴가, 방학에서 돌아와 다시금 일상을 준비하는 이 가을에 <The-K 매거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고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일 년 동안 쌓이는 정보량이 지난 오천 년간 인류 문명이 만든 정보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소통해야 할지, 자칫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장광설을 또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오랜 궁리 끝에 사람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옛말인 '사름'이 '살다(生)'에서 왔듯이 사람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비트(Bit)화되고 파편화되어 생성과



소멸이 짧게 반복되는 디지털 시대지만,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따뜻함, 웃음, 행복, 보람 등 변치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업(業)'으로 만난 사이지만, 여기서 만큼은 일터에서의 머리 아픈 이야기 일랑 잠시 접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주위의, 여러분 마음의 진솔한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이곳에서 아무쪼록 밝고 행복한 메시지만 얻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이 공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채워갈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The-K 매거진>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부용권



올로(YOLO), 휘게(Hygge), 라곰(Lagom), 오캄(Au calme)…
 요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스펠링은 달라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바로 ‘행복’이란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생긴 단어일 것입니다.

행복의 어원은 ‘일이 일어나다(Happen)’입니다.
 Happen의 접두어 Hap이 ‘우연·운’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행복(Happy)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행복론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도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봤을 때 행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행복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The-K매거진>은 첫 시작의 문을 ‘행복’으로 엽니다.
 ‘나의 삶, 나의 행복, 나는 과연 행복할까?’라고 의문을 계속 던지며
 행복을 찾아 삶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정, 학교, 인생… 어느 곳이나 행복은 있다고 말하며
 일상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행복은 무엇일까요?

<The-K매거진> 첫 번째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선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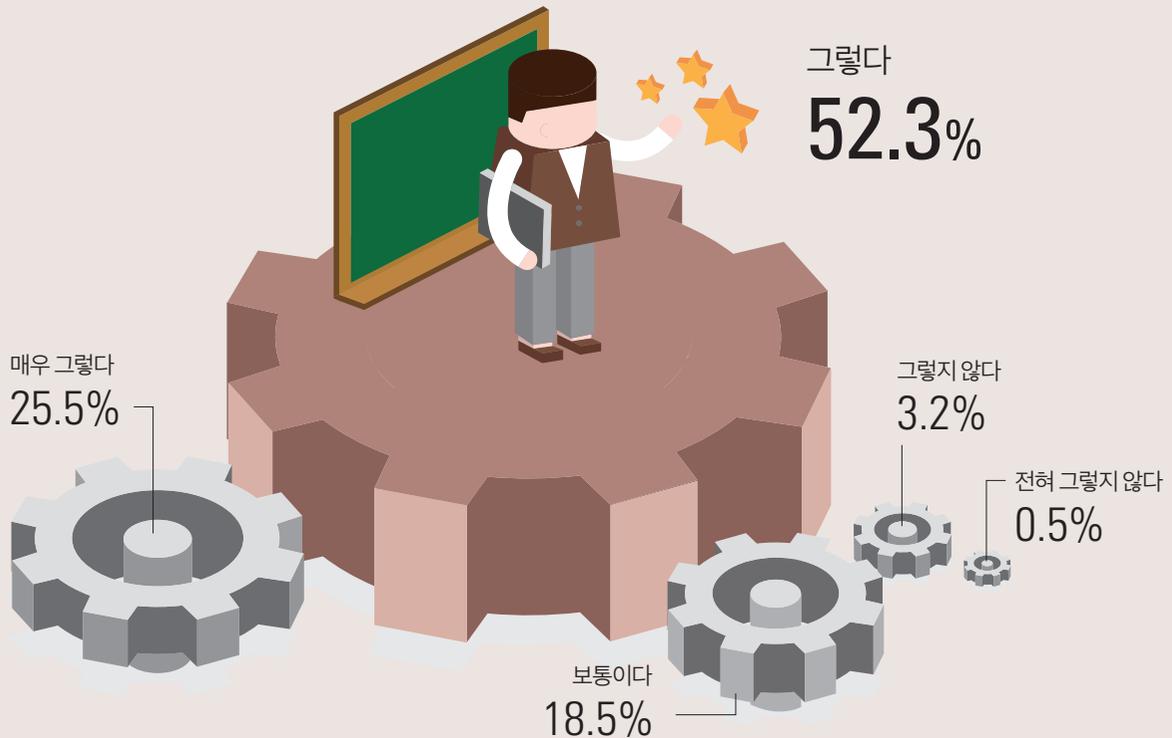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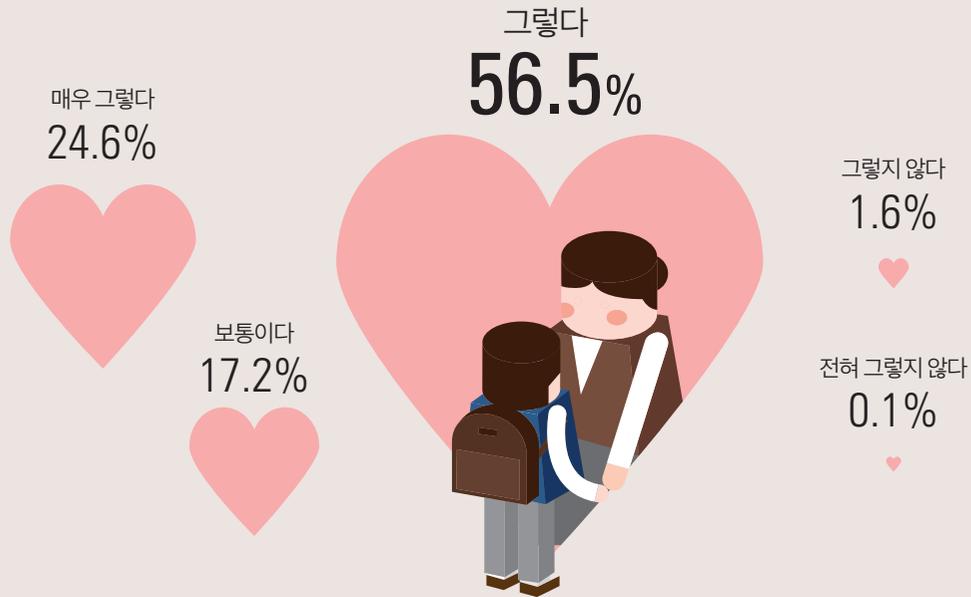
선생님으로서의 삶, 행복하십니까?

하루에 주어진 시간 24시간. 선생님은 대부분 학교라는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는 일반 직장과 달리 특수한 곳입니다. 더불어 선생님이란 직업의 무게도 다릅니다.
 어느 작가는 선생님의 직업을 '결코 직업이 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The-K 매거진>은 행복을 말하기 앞서 선생님들의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응해주신 이 설문조사에는 교직생활 만족도, 교사로서의 사회적 의미와 보람 등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담겨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은 행복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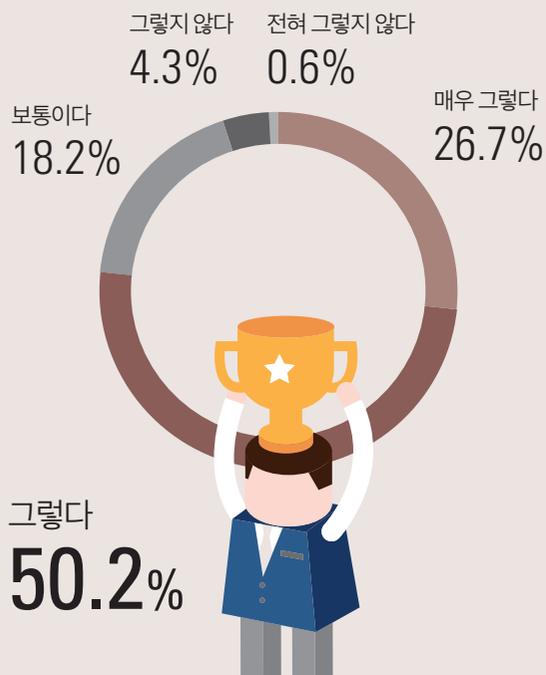
Q1. 교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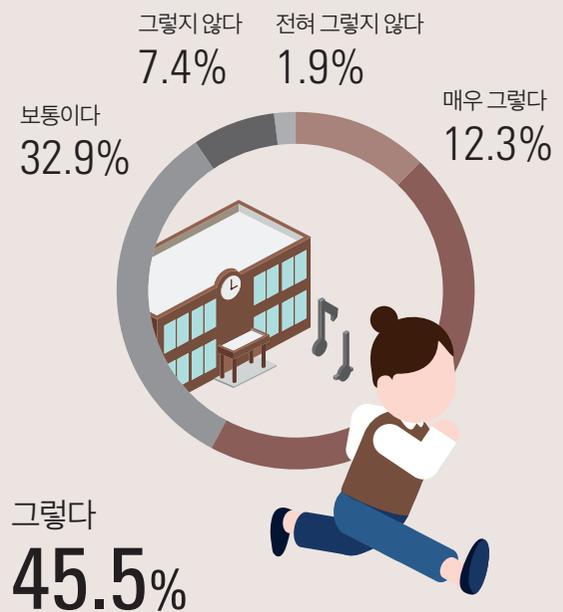
Q2. 학생은 나를 잘 따르고, 학생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



Q3. 교직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다



Q4. 학교 가기가 즐겁다



Q5.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그 외 의견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올 때 9.7%,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4.8%, 기타 2.5%, 동료 교사와 공감대를 형성할 때 1.3%,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을 때 0.6%

Q6. 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Q7.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를 선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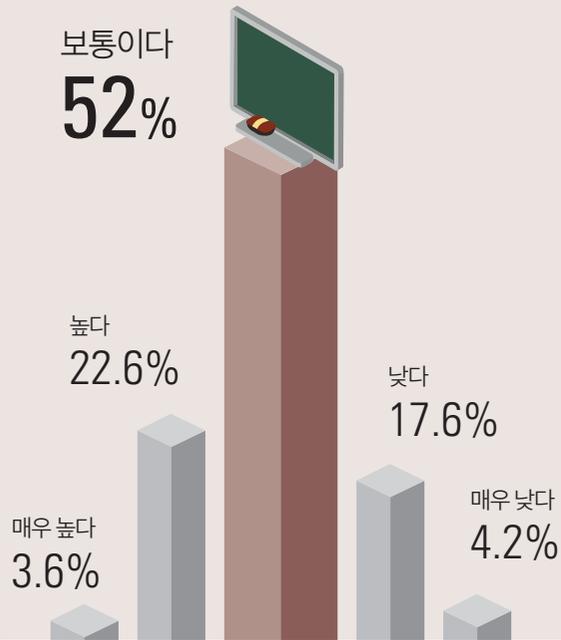


기간 : 2017년 7월 13일~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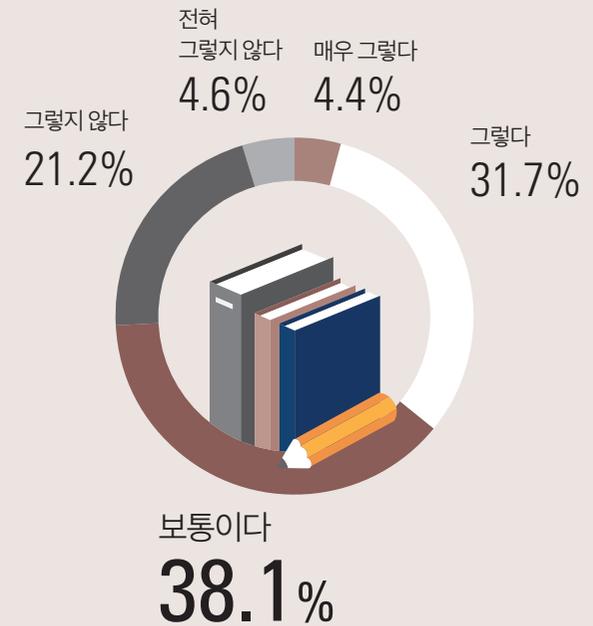
방법 :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 전국 교사 1116명(성별 - 여 64.2%, 남 35.8% / 학교 - 초등학교 42.6%, 고등학교 23.6%, 중학교 18.2%, 유치원 3.1%, 기타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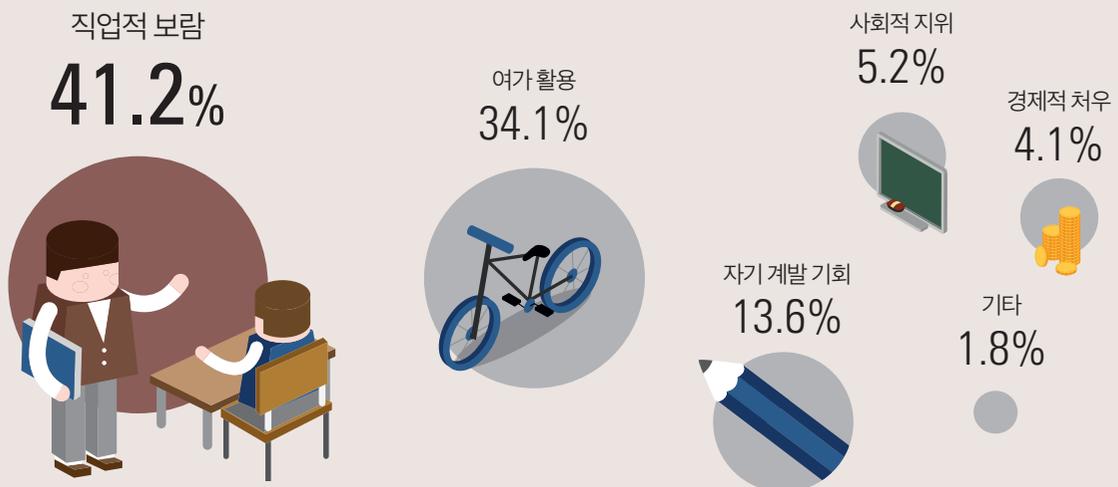
Q8. 우리 사회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생각하나



Q9. 교사의 급여, 복리후생, 연금 등 전반적인 경제·복지 처우에 만족한다



Q10. 교사의 직업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행복한 교사의 길을 위해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제법 많은 세월을 교단에서 분필을 쥐고 보냈으니 이런저런 감회가 밀려옵니다. 사실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어서 교직에 대한 열망이나 사명감이 높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부전공으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은 뒤 우연찮게 교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비로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사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더듬더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사가 될 무렵에는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 큰 인기가 없었고, “정 안 되면 선생이라도 하지”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교사의 길로 들어선 것이 썩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할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괜찮은 인간이 되어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제가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저로 하여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채찍질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한 곳은 야간 여상이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는 애들만 모아 놓은 학교라는 선입견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며칠이 지나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고, 일요일에도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석식 시간(야간 학교라 점심시간 대신 석식 시간이 있었습니다)에는 늘 우리 반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석식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교실에 올라가지 말라는 선배 교사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담임인 저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고, 제가 있거나 없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가 되어 맞이한 첫 여름방학 때 강원도와 경북 지방으로 일주일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여름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고갯길을 넘을 때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1번부터 차례대로 불러가며 힘을 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는 때 시간이 행복하거나 보람 찼던 건 아닙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몇몇 아이들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목청을 돋워야 할 때도 부지기수였고, 장기 결석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 변두리 동네 골목길이며 PC방을 돌아다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때로는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한숨을 쉬거나 괴로워한 적도 있었지요.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학생에게 음료수 한 병,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받으면 처벌된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늘 행복하기만 한 직업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적당한 긴장과 자극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줄 알아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말 그대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시를 써온 저는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박일환

1961년 충북 청주 출생.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에 시를 추천받아 등단했다. 시집 <푸른 삼각뿔> <끊어진 현> <지는 싸움> 과 동시집 <엄마한테 빛자루로 맞은 날> 청소년 시집 <학교는 입이 크다> 장편 소설 <바다로 간 별들>을 펴냈다. 현재 서울 영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업일기 1

선생이라는 존재

지각을 밥 먹듯 하고 특 하면 결석하고
 때로는 중간에 말없이 집으로 가버리는
 녀석들에게 화를 내곤 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시험 답안지에 3번만 내리 긋고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하고
 청소 시간에 농땡이만 부리는
 녀석들을 향해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녀석들이 한 명도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선생이란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쉬운 길만 찾아다니면서 보람을 얻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길은 분명 어렵고 힘듭니다. 어린 학생을 대하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사의 길은 충분히 보람 있고, 가볼 만한 길입니다.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교직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제자가 학교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지각, 결석이 무상하던 아이입니다. 겨우 꼴찌들이나 가는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을 시켜주어야 했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1년도 못 다니고 그 학교에서 밀려 나와 지금은 대안학교 비슷한 곳에 다니고 있다더군요. 그러면서도 생글생글 웃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니 한심하다는 생각 저편에 그래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학교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름대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니 기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3 때 담임이랍시고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입니다.

교사의 행복은 거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소소한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소함을 소중히 받아안고 갈 때, 교사의 길이 비록 화려한 비단이나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이지 않았을지라도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갈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길을 찾아 오늘도 분투하고 있을 모든 선생님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낮은 곳에서 찾은 행복

강진구 대전 꿈나라교육원장



전국 대다수 교원은 전쟁터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한다. 노력과 기대 그리고 좌절. 반복되는 숨바꼭질에 지칠 만도 하지만 그것이 교원의 존재 이유일뿐더러 아이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다. 그 행복을 찾아 30여 년 동안 근무해온 곳과 판이한 대안학교 설립에 참여한 사람, 그를 만났다. 강진구 대전꿈나래교육원장은 이제부터 행복 찾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아픔을 지닌 존재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어요. 신체적·정신적인 것을 포함해 아픔의 종류도, 깊이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치유되길 바라요.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강진구 원장의 직장은 대전꿈나래교육원이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대안학교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 아픔의 시간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믿는다. 치유의 시간은 기다림이 해결해줄 거라고.

강 원장은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매일 밤, 매 주말, 방학 기간에도 시간을 보낸다. 몸은 고됐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은 큰 힘이 되었다. 그런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역시나 아이들이 변화하는 때였다. 잠만 자던 학생,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독기를 품어대던 학생들이 차츰 웃음을 찾아갔다. 그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소통 방법을 찾아 떠난 길에 만난 행복

발자국이 많은 길을 따를 때는 주저함이 덜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앞선다. 그럴 때마다 이 길로 들어선 계기를 떠올린다. 대전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저에게 다 털어놓으며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이 보는 앞에서 엄청 혼을 냈어요. 다행히 더 이상의 폭력 사태는 없었지만 교사로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폭력

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가해학생도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는 아닌 것을 알면서 정해놓은 틀이나 편견에 비추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갈구, 약자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다른 아이들과 관계 맺기가 서툴다. 표현 방식도 서툴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에게도 비상구가 필요한 터.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을 위한 메신저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안학교 설립에 참여하게 된 계기다.

“아이들만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도에 돌아갔다고 너희는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여기까지 생활을 이어온 것도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다. 사랑한다’라고.”

한 아이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면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고 고백하는 강진구 원장이다. 낮은 곳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의 행복 찾기는 계속될 듯하다.

“아이들만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도에 돌아갔다고 너희는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여기까지 생활을 이어온 것도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다. 사랑한다’라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교사가 된다

장소영 인천 강화여자중학교 교사 · 임지훈 강화중학교 교사

야트막한 산과 초록에 둘러싸여서일까. 심호흡을 해보면 공기부터 다르다. 강화도 한 자락, 푸른 자연 속의 별장 같은 집에 장소영 강화여중 · 임지훈 강화중 교사 부부가 산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스스로 행복을 일구고, 긍정적 마인드로 밝은 에너지를 선물하는 선생님.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물 같은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그림 같은 집에 가득한 행복

토마토, 감자, 상추 등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는 텃밭을 지나자 환하게 웃으며 취재팀을 맞이하는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뒤를 이어 따라 나오는 아이들. 중1부터 다섯 살까지, 요즘 보기 드물게 4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2015년 겨울, 인천 시내의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강화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는 물론 보금자리, 아이들과 시부모님까지 대이동이었다.

“전원주택에서 채소도 키워 먹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꿈이었어요. 다행히 학교를 옮길 기회가 생겨서 선택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무척 행복하거든요.”

올해로 교직 생활 15년 차와 16년 차인 부부는 각각 다른 학교에서 수학교사와 체육교사로 근무하다 결혼에 골인했다. 만난 순간부터 아내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남편의 진실하고 든직한 모습에 반했다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료이며 삶의 동반자다.

아이를 키우며 터득한 교사의 길

가정에서 사람들은 다음날을,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곤 한다. 그들에게도 가정은 좋은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퇴근해도 남편과 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누다가 마침맞은 방법을 찾기도 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늘 든든한 부부지만, 이들에게 행복의 원천은 역시 아이들이다.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저마다 개성이 다른 자녀들이 너무 신기해 “다음엔 어떤 아이가 올까?” 궁

금해하다 보니 4명이 되었다고 장 교사는 웃는다. 부부의 아이들은 요즘 흔하지 않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다. 자연 속에서 뛰놀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지금의 환경을 택한 건 아이들이 지닌 힘을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부모가 된 후 교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미혼일 때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장악하고 학생들을 이끄는 편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해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층 유연해지면서 학생들과의 소통도 수월해지고,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도 더욱 잘하게 되었다.

“먼저 존중해주면 학생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학생들을 존중하면 학생들도 느낍니다.”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선생님

부부는 강화로 옮긴 뒤 자녀들 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의 학교도 가깝고, 교장선생님도 배려해주셔서 도시 학교에서라면 꿈도 못 꿀 녹색어머니회 활동이며, 공개수업, 학부모총회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직접 기른 토마토며 감자를 싸들고 가 나눠 먹기도 하고, 속 깊은 얘기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로 다가간다.

앞으로도 ‘사명감 있는 진정한 교사’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교사’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부부. 이들의 앞마당에서 자라는 유기농 채소가 유난히 싱싱하고 예뻐 보이는 까닭은 아이들, 학생들, 흙 속에서 자라는 한 줄기 식물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이라.



부모가 된 후 교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해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먼저 존중해주면 학생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학생들을 존중하면 학생들도 느낍니다.”

두메산골 작은 학교에서
찾은 큰 기쁨

이숙자 강원 마차고등학교 교사



마음이 능선을 타고 고립돼 있기도 하고, 해발 1000m 고지에도 학교가 있는 강원도. 이숙자 강원 마차고 교사는 교직 생활 28년 중 절반 이상을 강원도 두메산골 학교에서 보냈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임용된 그는 산속 섬과 같은 강원 오지 학교를 택했다. 오랫동안 시골 산간 작은 학교에서 근무한 그는 참 맑아 보였다.

작은 학교 아이들이 주는 행복

“임용되고 맞은 첫 번째 스승의 날, 아이들이 수줍게 내놓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반 1번 학생은 두릅나물, 2번 학생은 취나물, 3번 학생은 곰취나물…. 그때는 귀했던 신문에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은 제자들의 정성스러운 첫 선물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은 강원 교사들 사이에서도 오지로 정평 나 있다. 20대 초임 교사가 받은 그곳에 대한 첫인상은 ‘이런 척척산중에도 아이들이 있을까?’였다. 하지만 순박한 첫 제자들을 만난 순간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산간벽지 학교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지만 그의 눈에는 순박함을 넘어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삼척 하장에서 2년, 태백에서 8년, 평창에서 2년, 영월에서 5년, 작은 학교생활은 교직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전교생 1,000명이 넘는 학교에 근무한 적도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의 경험에는 특별함이 있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먼저 다가갔으며, 지적보다는 인사를 통해 가까워졌다. 학생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을 쏟아내며 회로애락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했다.

방학을 싫은 아이들, 방학을 기다리는 선생님

강원도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눈이 1m에 가까운 눈이 내린다.

“눈이 많이 오면 택시를 불러도 오질 않아요.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요. 임신했을 때 근무한 학교는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유산의 위험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혼자 하숙도 했어요.” 강원도 산골의 칼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기에

아이들의 내면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 끈끈한 관계가 학생들은 물론 저도 성장하게

만들어주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이에요.

걸려 한 달 넘게 고생하기도 했다. 부임 후 처음 맞은 겨울은 그에겐 너무나 혹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의 사정을 알 리 없었다. 아이들은 한없이 잘해주는 선생님과 떨어져 지내기를 싫어했다. 방학을 싫어할 만큼 학교생활을 마냥 즐거워했다. 그런 학생들과는 반대로, 그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학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고 또 그립다.

“작은 학교는 단순히 학교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작은 학교만이 주는 특별함이 있죠. 아이들의 내면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 끈끈한 관계가 학생들은 물론 저도 성장하게 만들어주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이에요. 초임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시무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분명 자부심은 커질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는 말한다. 작은 학교 교원들이 자신만의 빛을 내며 학생들을 돕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진리니까요.”

우리 선생님의 웃음과 칭찬의 마술사

위험한 아이들과 클래스 그리고 라자르 선생님

얼마 전 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상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십수 년이 지난 터라 선생님에 관한 기억은 대부분 휘발됐지만, 종종 영화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곤 한다. 문득 떠올랐다. 우리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의 로 기억되고 있을까?

선생님 영화?

선생님을 위한 영화

‘만약 나도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은사를 만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을 품은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 검색창에 ‘선생님 영화’를 검색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 <홀랜드 오피스> <디태치먼트> 같은 영화가 나온다. 이 영화가 교사와 교실의 기능, 교육제도 등에 대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던져줬다면, <스쿨 오브 락> <배드 티처> <선생 김봉두> <여선생과 여제자>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는 그때 그 시절의 교실 풍경을 희화화해 즐길 수 있게 했다. 이 영화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교실 이데아’를 보여주는 영화를 꼽으라면 미셸 파이퍼 주연의 <위험한 아이들>과 2008년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클래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의 필리프 팔라도가 감독한 <라자르 선생님> 등 세 편의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다.

시대의 급변으로 달라지는

교실 풍경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시대가 급변하면서 달라지는 교실 풍경을 재미있는 장면으로 보여준다. 시대의 이슈를 찾아 공격적으로 풍자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은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를 찾아 아이들이 미술랭 스타급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한다. 교육 수준이 전 세계 1위라는 핀란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놀라운 토론 실력을 보며 미국이 (자본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런 선진화된 교육 수준을 ‘약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성향상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결국 어른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내놓는 대답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곳 아이들은 교실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이든 교육받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교육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로랑 캠태가 감독한 <클래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지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프랑스의 한 중학교 교실

클래스





라자르 선생님

풍경은 더 이상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체벌이나 숙제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도 적나라하게 다룬다. 수업 시간에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어 논리 대결을 펼친다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영화 내내 등장한다. 그렇지만 주인공인 마랭 선생님은 아이들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어찌 보면 너무 추상적인 방법 같지만 마랭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다른 말은 ‘눈높이’와 ‘칭찬’이다.

너무 심각한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소개한 것 같지만 이 영화들은 보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 짓게 만든다. 그 이유는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아이들>과 <라자르 선생님>에서 선생과 제자가 서로를 감싸주며 대화와 사랑, 치유의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나가는 모습은 성격상 전혀 다른 두 교사가 같은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교실 영화’가 아이들이나 교실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두 영화는 특이하게 교사도 주목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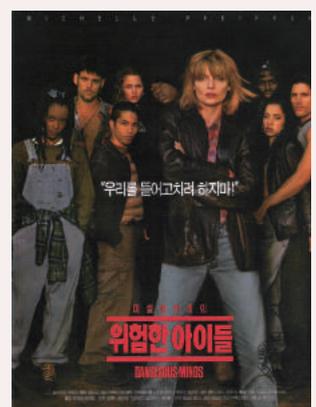
교사와 아이들의 문제를 보다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위험한 아이들>과 <라자르 선생님>을 주목하자. 학교가 문학, 역사, 문화 등의 교과과정뿐 아니라 친구 혹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 과정 전반을 습득하게 되는 곳이라면, 이 두 영화는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자신과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위험한 아이들>에서 미셸 파이퍼가 연기하는 루앤 선생님은 학교의 문제아를 상대로 밥 딜런의 노랫말을 가르치거나 가죽 점퍼를 입고 등교하는 등 철저한 눈높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라자르 선생님>의 라자르 역시 아이들에게 글짓기 숙제를 내준 뒤 자신도 똑같이 숙제를 해서 아이들이 채점하게 하는 식으로 눈높이를 맞춘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동반 성장한다. 이 두 영화에서 선생과 제자가 서로를 감싸주며 대화와 사랑, 치유의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나가는 모습은 성격상 전혀 다른 두 교사가 같은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교실 영화’가 아이들이나 교실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두 영화는 특이하게 교사도 주목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착하고 순진한 해법 같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의 진로를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웃음과 칭찬의 기술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방향을 잡고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영화들이 강조하고 있다.

위험한 아이들



쓰다, 함께 걷다, 다 같이 나누다

현재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한문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으며 다수의 시집과 동화책을 발간한 이정록 시인이 만해선생 생가지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다.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만해 한용운 선생과 이정록 시인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겹치는 교집합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
정
록
교
사
와
제
자
들
이
함
께
한
향
교
체
험

홍성에서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태어난 이곳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웠다. 잘 가꾸어진 잔디와 꽤 오랜 세월을 품었음직한 나무들, 초가집 형태를 그대로 갖춘 만해 선생의 생가와 영당, 민족시비공원 그리고 만해문학체험관까지. 모든 게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잘 어울린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회진 시인, 장수민 동화작가, 김지훈 교수 그리고 이은선 소설가. 연령대도 성별도 다르지만 모두 '이정록 시인의 글 쓰는 제자'이다. 호탕한 웃음으로 주변을 압도하며 이정록 시인이 등장했다. 스승과 제자, 선후배 사이의 조심스러움과 어색함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이정록 시인의 웃음 속에서 배려 깊은 몸짓을 알아챈 제자들의 얼굴에도 덩달아 미소가 퍼져나갔다.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픈 욕심에 여기까지 불러들였다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정록 시인. 그의 제안으로 대나무와 소나무가 가득한 숲을 병풍 삼고 있는 만해 선생의 생가와 그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는 생각 보다 매우 작았다. 싸릿대를 엮어 만든 울타리, 작은 텃마루, 흙벽... 작고 소박한, 아마도 만해 선생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초라했을 공간을 상상하니 다가온 울림이 더욱 컸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불교 개혁, 문학에 헌신해온 그의 삶이 작은 초가집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생가 한쪽에 자리 잡고 꽃을 한가득 피워낸 백일홍나무는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33년을 교단에 선 이정록 시인의 입담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산책길에 와르르 터지는 스승과 제자들의 웃음 속에는 모두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흥이 가득하다.

“홍성여고 재학 시절 저희에게 한문을 가르치셨어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셨죠. 가끔 직접 쓰신 시도 읽어주셨고요. 멋쟁이셨던 선생님을 남몰래 좋아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탈무드-

장수민 동화작가가 이정록 시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 걸으며 감춰뒀던 옛 추억을 살짝 꺼내 들려주었다.

오후의 산책을 마치고 모두 만해문학체험관 2층에 모였다. 만해문예학교 체험 중 하나인 시 창작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교단에 선 이정록 시인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듯 했다. 제자들과 함께 하니 과거 수업 시간의 말투와 웃음이 고스란히 되 살아났다. 제자 4명 외에도 이정록 시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노작홍사용문학관 수강생들 역시 자리를 잡았다. 평생을 교단에 서은 덕분일까? 시인의 강의는 명쾌하고 거침없었다. 시인이자 아동문학 작가이자 한문 교사로서 한자 하나를 놓고도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에 모두가 홀린 듯 빠져들었다. 보이는 게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것,

오감을 열어야 한다는 것, 독자들을 위해 문 가까운 곳에 스위치를 달아주라는 것... 지금의 수강생도, 제자들도 이정록 시인의 이야기를 눈과 머리 그리고 가슴에 오감으로 새겼다.

다례와 떡메 치기로 과거를 돌아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어느새 훌쩍 다가온 저녁 시간. 모두가 인근의 결성향교로 이동하기로 했다. 오늘 체험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먼저 다례(茶禮)를 배우는 시간으로, 차를 마시는 예나 몸가짐, 분위기와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찻상을 앞에 들이기에 앞서 먼저 복장을 갖추기로 했다. 삼복더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유건을 갖춰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옷을 단정히 입자 모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자들 중 유일한 청일점인 김지훈 시



결성향교

결성향교는 고려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곳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역민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향교로 향교스테이, 만해문예학교, 만해어린이학교 등 전통과 문화, 인문학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유생 체험, 다례 체험, 떡메치기, 인문학강좌, 전통 혼례 등 체험이 가능하다.

- 📍 위치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707번길 21-8
- ☎ 문의 이현조(010-6512-6112)



이은선 소설가

“다시 쓰는 고교시절의 추억”

오늘 하루는 살면서 잊고 지냈던 고교 시절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다시 쓴 기분이었어요. 돌이켜보니 고등학생 때 빈 선생님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였어요. '18년 전 인연으로 만나 지금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같이 글을 쓰는 작가로서 시간을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한 오늘이 정말 멋지게 느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빛나지 못하는 행성이더라도 먼 거리에서나마 서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장수민 동화작가

“문학에 대한 선생님의 변함없는 열정에 자극 받았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동기인 강회진 시인과 후배인 이은선 작가를 만난 것도 정말 반가웠고요. 제가 문예창작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정록 선생님께서 따로 불러서 선생님의 습작 노트를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습작 노트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품고 계시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느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문학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은 행여 기회를 놓칠 세라 재빨리 스승님과 함께 셀카삼매경에 빠졌다. 김지훈 시인에게 이정록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은 물론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을 길러주신 스승,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는 열린 스승이기에 함께 사진 찍기를 청하는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다례 시간은 엄숙했다. 오른손으로 다관 손잡이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뚜껑을 누른 뒤 쪼르륵 맑은 소리가 나게 찻물을 따르는 법부터 찻잔을 드는 방식도 배웠다. 잔을 받치는 건 일본식, 접시째 잔을 드는 건 중국식, 도포 소매를 잡고 잔을 드는 것이 우리의 예라는 말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높은 사람과 차를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도포 소매자락을 높이 들어 입을 가리고 차를 마신다는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 해봤다. 옥빛 도포 소매자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자 차향만이 공기를 떠도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사방을 감싼다.

고요함이 가득한 다례 시간이 끝나자 어느덧 짙은 어둠이 내리고 안마당에는 떡메 치기를 위한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절편이나 인절미 등을 차지게 하기 위해 넓은 통나무 판에 찢 쌀을 놓고 내리치는 떡메 치기는 이제는 ‘체험’이라는 이름이 아니면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 우리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찢 쌀을 널찍한 판 위에 모아 놓으면 물을 문헌 떡메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는 게 방법이다. 쿵, 쿵, 쿵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 자랑을 하는 스승의 모습에 모두 와르르 웃음보가 터졌다. 여

자 제자들은 아이돌이라도 본 듯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니, 떡을 치는 게 아니라 추억과 즐거움을 치는 듯한 풍경이다.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날벌레, 가열한 매미의 울음소리, 조금씩 흩뿌리기 시작한 빗방울까지 완벽했던 하루가 저물어간다.

“제자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고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 대신 글쓰기의 고행을 선택한 제자들의 길을 보며 행여 저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들 자기 영역에서 공부도 충실히 하고 확고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내 글을 볼 제자들을 생각하며 나를 바로 보는 다른 거울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잘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작가가 되었을 때 신경림 선생님께서 ‘시는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좋은 작품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작품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외준 제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관계는 시간 앞에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인 스승과 글 쓰는 제자들의 만남은 더욱 더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다른 출발선에서 같은 지점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문학의 힘, 그것은 참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10줄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두 개의 바퀴, 여러 개의 행복이 되다

누구는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서,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린다. 인천 지역 교사 자전거 동아리 '해피 투 휠스'는 매주 화요일 허벅지 근육이 터질세라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땀벌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도, 비가 잦은 장마철에도, 추운 한겨울에도 그들의 발은 페달 위에 있다. 기자가 해피 투 휠스를 만난 날에도 장맛비가 내렸지만, 페달을 밟는 그들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인
천
교
사
자
전
거
모
임
'해
피
투
휠
스'



두 바퀴가 주는 행복

2017년 7월 18일, 경인 아라뱃길 황어장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헬멧과 선글라스로 중무장한 6명의 라이더가 계양대교 밑 커다란 황어상 앞에 모였다. “오늘은 행주산성까지 왕복하는 60km 코스로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노승근(인천 공촌초 교장) 회원이 그날의 코스를 설명하며 안전 수칙과 출발 장소인 황어장터에 모인 이유를 다른 회원들에게 들려준다. “인천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음력으로 오일장이 열린 3월 24일, 600여 명의 주민이 일제에 항거하고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친 곳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고 학교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30여 년간 자전거로 전국을 누벼온 노 회원은 자전거의 매력을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싶어 2015년 이창섭(인천 공촌초 교사)회원과 ‘해피 투 휠스’를 창단했다. ‘해피 투 휠스’는 이름 그대로 두 바퀴로 전국에 행복을 전하러 다닌다. 지난 2년간 경인 지역은 물론 대관령, 금강, 제주 등 전국 8도를 거치는 동

안 페달 위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또 매주 교사들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니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관리자는 평교사들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전거 위에서는 듣거든요. 이는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두 바퀴가 주는 행복은 가정에도 이어졌다. “아내는 제가 자전거 타러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죠.” 김선주(인천 공촌초 교감) 회원은 자신보다 아내가 해피 투 휠스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해피 투 휠스를 만나고 가장 많이 변모한 사람이 김선주 회원이기 때문이다. 교내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웠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건강한 교사로 탈바꿈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뒤쳐져 다른 회원들이 속도를 못내는 상황이 계속되자 그는 과감히 금주와 금연을 선언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건강 전도사가 됐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해맑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사의 모습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우리의 행복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해피 투 휠스 이창섭 회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전거로 매주 100km를 달린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즐겁다는 그가 재직 중인 인천 공촌초등학교는 전 교생의 2분의 1이 교육복지대상자다. 초등학생임에도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보기 위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그는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한 정서 교육을 택했다. 학생들과는 자전거로 함께할 수 없어 노승근 회원과 합의하여 전교생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난 2년은 그와 동료 교사들에게 있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해맑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사의 모습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교사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모임이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전달한다고 믿는 그의 말처럼 공촌초등학교 아이들의 폭력성은 처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전거의 또 다른 이름은 잊지 못할 추억

해피 투 휠스 회원들에게 가장 즐거웠던 하루를 묻자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2017년 6월 14일 시화연꽃단지를 라이딩하던 날이다. “소래생태공원에 있는 관곡지를 지날 무렵이었어요. 회원 모두 배가고프던 차에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자전거를 세우시고는 논일을 하는 주민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혹시 자장면 배달이 되면 여기서 먹고 가도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모두 배를 잡고 웃었죠.” 그로부터 15분쯤 지나자 마라도에서나 들을 법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장면 시키신 분!”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진우(인천 공촌초 교사)회원과 임경우(인천 공촌초 교사)회원은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다가 눈을 맞추며 얘기했다. “그때 먹은 자장면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 또 하나 있다. 지난 5월 제주도라



이딩 당시 양팔이 없는 철인 김대영 씨와 만난 것이다. 김대영 씨는 1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고 좌절과 방황 속에서 헤매다 우연히 시작한 운동으로 철인이 된, 라이더 사이에서는 희망의 아이콘 인물이다. 특히 학창 시절 마라톤 선수에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된 김지원(인천 공촌초) 회원에겐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김대영 철인의 도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에 못지않은 철인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등 총 51.5km를 완주하는 대단한 도전이다. 양팔 없는 철인의 거침없는 도전이 세상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듯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나아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꿈에 도전하는 해피 투 휠스의 날갯짓이 아름다운 도전이 되길 희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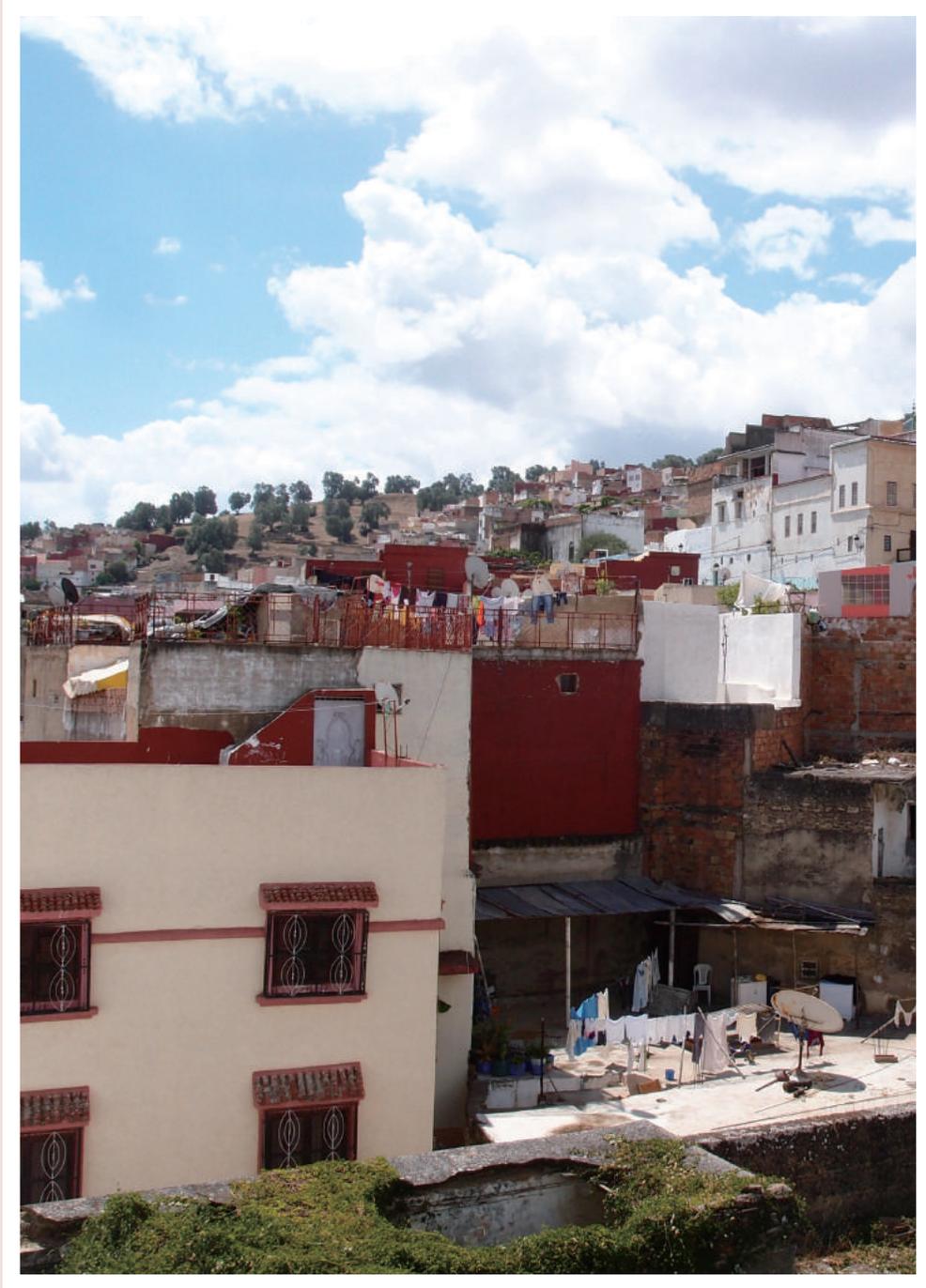


해피 투 휠스와 함께해요!

교직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는 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분, 자전거와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느껴보실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 연락주세요. 초보부터 프로까지 모두가 행복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해피 투 휠스의 문은 365일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성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이창섭 교사
010-9049-9975

모로코에서 다시 찾은 나의 정체성



북아프리카 모로코 와잔 이야기

“어머니, 정말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세상 모든 선생님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교사처럼 생겼다는 말은 딱딱한 표정을 짓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말의 대명사처럼 들렸거든요. 교사 생활 10년 차, 실제 제 생활은 그랬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 없었습니다. 학교생활도 시큰둥해져 아이들과 함께 흥분하며 눈 맞추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엉뚱한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되었을까?’ 주어진 대로 순순히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사춘기 때나 가질 법한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은 견잡을 수 없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로.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나로 살아보겠노라고 외치며 KOICA(한국국제협력단) 수요 조사서를 뒤졌습니다. 마침내 찾은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와잔(Ouazzane)이라는 작은 도시의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 한번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 모로코 북부의 작은 마을 와잔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와잔 (Morocco Ouazzane)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단에 있는 나라로, 와잔은 모로코 북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란어로 ‘무게라는 뜻을 지닌 와잔은 모로코 내에서도 유명한 성지이며, 신성한 도시로 불립니다.

첫 출근은 블레이 와자니 초등학교

교육청 옆에 위치한 블레이 와자니 초등학교에서 일주일간 3학년 학생들을 관찰한 후 가르쳐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총 6개 학급이 있는 블레이 와

자니 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50명 정도의 학생이 수 학, 정통 아랍어, 이슬람 교리, 프랑스어, 과학, 예술, 체육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그중에서 어린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코란을 암기하는 이슬람 교리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다리에서 떨어져 끔찍한 벌을 받게 된다는 담임 선생님의 설명도 흥미로웠고요. 이슬람 교리와 함께 모로코 초등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교과목은 수학과 프랑스어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합니다. 한때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에서는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지식과 사회적 계급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은 프랑스어는 또래 학생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하게 말하는데 비해 수학은 숫자의 기본 개념조차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3학년 학생 대부분이 양 손가락을 써가면서 계산하는데도 10이 넘어가면 헤매는 학생이 수도룩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선택한 건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계산법이란 짧은 시간 제한을 두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풀도록 하는 연산 훈련법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매일 반복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산 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담임 교사 카디자와 기적의 계산법에 대해 논의한 후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추적추적 비 오는 일요일 아무도 없는 교육청에 혼자 출근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계획서도 다 됐고, 문제도 다 냈고, 평가지도 다 만들었고. 학습지만 복사하면 된다. 아싸!” 하고서 복사기가 있는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복사를 담당하는 아저씨께 시험지 4장을 내밀고 “50장씩 복사 좀 부탁해요”라고 말하자, 곤란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 니다. 이곳은 복사 한 장 하는데 1디르함(약 120원) 이 드는 모로코라는걸요.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복





모로코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피부색도, 머리색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같이 예쁜 이 시골 아이들이 수업 마지막 날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사용지는 개인이 사야 하더군요. 당장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 2장씩, 자그마치 50명의 아이에게, 30일간 나눠줄 학습지를 어떻게 복사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만 앞서서구나' 혼자 잠시 반성하고 방법을 수정해서 시간표처럼 사각표를 그려 틀 안에 숫자만 써주는 것으로 학습지 만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연산 훈련을 진행하는 내내 학습지 100장씩을 저녁마다 손으로 썼습니다.

두근대며 준비한 학습지

학습지가 서투른 아이들은 첫날 꽤나 고전했습니다. 학습지에 이름을 써야 하는 것도 모르고, 문제를 다 풀 후에 타이머를 보고 시간을 적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나눠준 학습지를 다시 걷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다행히 담임 교사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제가 제시한 활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교사인 카디자가 학생 3명을 불러 제 앞에 세우더니 반 아이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열여섯 살인데 진급을 못해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좀 모자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라고. 듣는 제가 민망해서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카디자는 학습지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이 아이는 공부 안 하는 아이”라거나 “이 아이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정상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 숙인 학생들보다 제 고개가 더 폭 숙여졌습니다.

카디자가 나쁜 교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고, 30년 차 교사답게 아

이들의 반응도 잘 읽어냅니다. 아이들도 카디자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단지 카디자의 그런 행동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뿐이니까요.

예상보다 일찍 연산 훈련법을 접어야 했지만, 아이들과의 추억은 이후 오랫동안 모로코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추위에 터진 손으로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핸드크림을 발라주던 날에는 서로 밀치며 손을 들이대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썩내며 바라보던 아이들 덕에 교사가 얼마나 사랑받는 직업인지를 새삼 느꼈고, 고무줄 놀이를 하는 여자아이들을 바라보며 국민학생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건 전세계 어디서나 하는 장난인가 봅니다.

매일 꽃을 안겨 준 아이들

하루는 어디서 뽑았는지 남자 아이 2명이 뿌리째 뽑은 노란 들꽃 한 무더기를 깡깡대며 들고 와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꽃뿐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 작은 동화책, 주머니를 뒤적여 찾아낸 사탕이나 비스킷까지 제게 내어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마워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꽃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서 책상이 비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로코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피부색도, 머리색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같이 예쁜 이 시골 아이들이 수업 마지막 날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때로 어떤 특별한 기억은 어려운 날들을 살아 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호기심 가득한 외산 아이들의 눈망울이 꽃향기 가득했던 제 책상과 함께 떠오릅니다.

정혜원

남편도 직업도 잠시 덮어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로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그녀는 이를 모로코와의 연애라고 표현한다. 올해 한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연애를 시작했다. 바로 울산 서부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꽃의 또 다른 매력, 드라이플라워

누가 꽃의 아름다움을 순간이라고 했던가.
 드라이플라워는 꽃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태어났을지 모른다.
 생(生)의 아름다움을 생화가 가지고 있다면,
 드라이플라워는 시들지 않아
 오랫동안 곁에 머무는 매력이 있으니 말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모양도 달라져 빈티지한 매력도 더한다.
 바람의 온도가 바뀌는 초가을은
 드라이플라워를 만들기에 딱 좋은 계절.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해 캘린더 액자를 만들어 보자.



드라이플라워 캘린더 액자

드라이플라워를 품은 캘린더 액자



재료 드라이플라워, 5×7cm 액자, 9월 달력 출력지(필페이퍼, 머메이드지), 지철사, 플로럴 테이프(일반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글루건, 가위, 자, 포장지, 리본
 드라이플라워: 유칼립투스, 골든볼, 오리나무, 시넨시스, 라그라스, 에린지움, 펠리카

캘린더 액자 만들기



1 준비한 드라이플라워는 높낮이를 맞춰 미니 꽃다발로 만든다.



2 ①을 플로럴 테이프로 묶은 뒤 마음모 모양의 포장지로 감싼다.



3 지철사로 고정된 뒤 리본으로 장식한다.



4 완성한 미니 꽃다발을 글루건을 이용해 캘린더 액자에 붙인다.

드라이 플라워 만드는 법

1. 싱싱하고 모양이 잘 잡힌 꽃을 구입한다. 월·수·금요일은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훼상가에 꽃이 들어오는 날이다. (수입 꽃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2. 구입한 꽃은 꽃가위나 가시 제거기를 이용해 잎사귀를 모두 제거한다. 유칼립투스를 말리면 잎사귀처럼 표현 가능하다. 파블로, 블랙잭, 시네리아, 폴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3. 고무줄로 묶은 뒤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거꾸로 매달아 말린다. 이때 꽃의 얼굴(꽃부리)이 서로 겹치지 않게 매달아야 꽃 모양이 예쁘게 유지된다.

TIP

- + 예쁘게 마르는 꽃은 대부분 화관이 작다.(골든볼, 스타티스, 시넨시스, 안개꽃 등) 화관이 크거나, 수분이 많은 꽃은 걸은 말라도 속은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다.
- + 선물 받은 꽃다발을 예쁘게 말리고 싶다면, 먼저 꽃다발을 해체한 뒤 잎을 정리한다. 포장지째 거꾸로 매달아 말리면 화관끼리 겹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쉽다.

선생님, 우리 애는 공부 시키지 마세요

몇 년 전 3월 초, 학부모 상담 주간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급 학생 수를 다 합해봐야 열둘밖에 되지 않으니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학부모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창밖으로는 노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은 재혁이 어머니였습니다. 속으로 ‘빨리 끝나진 않겠구나’ 싶었죠. 학기 초에는 아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주로 학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식의 상담을 해왔지만, 재혁이는 반대로 담임인 제가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재혁이는 학기 초 진단평가에서 바닥을 짚은 아이였습니다. 3학년이었지만 짐작대로라면 아마도 구구단 7단 이상은 헛갈릴 게 틀림 없었습니다. 당연히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혁이 어머니가 제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지요?”

“어렵게 시간 빠져 왔는데 기다리느라고 30분 넘게 시간을 보냈네요…”

재혁이 어머니가 얼버무린 뒷말은 아마도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재혁이 어머니는 평소에도 매우 바쁜 분이었습니다.

“재혁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모르는 재혁이의 모습이라든가, 재혁이에 대해 담임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재혁이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옆집 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재혁이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선생님, 재혁이 누나 둘 모두 이 학교 졸업한 거 아시지요? 우리 재혁이도 그렇지만 누나들도 공부 잘 못했어요.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재혁이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학교에 오래 근무한 선생님 말로는 재혁이 누나들도 재혁이 성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봐서 아는데 우리 애들은 공부 머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재혁이 붙잡고 해봐야 공부, 당연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면 좋겠어요. 재혁이는 커서 막노동하면서 먹고살면 돼요.”

재혁이 어머니는 제게는 시선을 주지 않고 먼 곳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정도로 확신에 찬 말을 한다면 보통은 자신의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보다 내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교사를 대하면 교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한 강을 끼고 서 있는 장수를 마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교사가 학부모를 대해야 하는 순간 역시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김성호

교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하고 대단한 위로가 아닌 ‘괜찮아’라는 작고 사소한 위로라고 말하는 사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16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로서 교사의 성장을 고민하며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을 위로하는 중이다. <선생님, 걱정 말아요> <선생님, 하기 싫은 날> <행복한 진로 교육 멘토링> 외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결국 교사의 듣기 좋은 말 한마디로
학부모와의 상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이라는 연장선 위에
학부모와의 관계가 놓이는 것입니다.**

와 교사의 신념이 부딪힐 때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 함께 생각해보자”며 자신 있는 모습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재혁이 어머니, 아이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지금껏 제가 가르친 수많은 아이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선생님, 저는 아이를 셋 키웠어요. 선생님이 아무렴 저보다 제 아이들을 잘 아시겠어요?”

“그럼요. 저는 재혁이 어머니보다 재혁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더 잘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저는 기껏해야 재혁이를 3월 한 달 만난 게 다잖아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보다 잘 아는 재혁이의 모습도 있어요. 그건 바로 재혁이의 숨은 가능성이

예요. 제 눈엔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니까요.”

이 순간 한 호흡 멈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던진 말이 재혁이 어머니 가슴속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간 재혁이 어머니의 얼굴이 의아해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기대를 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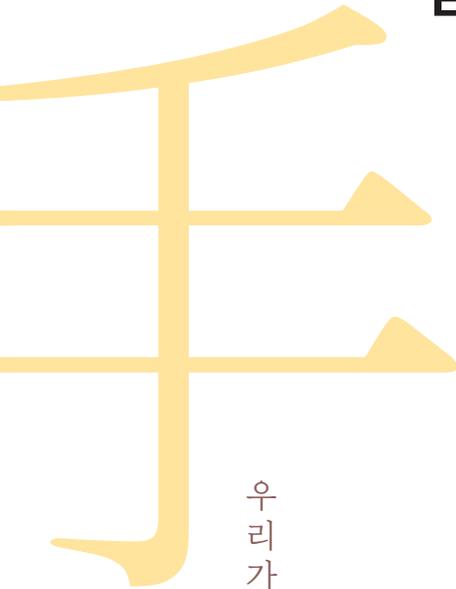
“우리 재혁이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재혁이가 공부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재혁이 어머니, 제 사전에 ‘공부 못하는 아이’란 말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만 있죠. 재혁이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1년 후 제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제 이름을 걸고 재혁이가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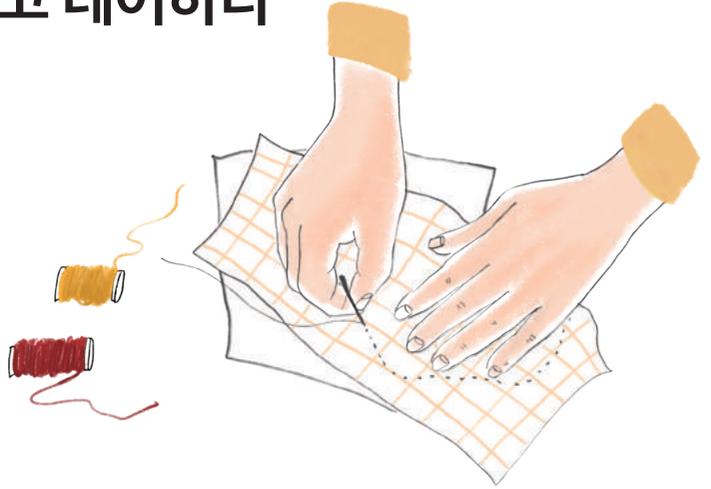
아마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재혁이는 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학년말 수학 시험에서 당당히 100점을 맞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는 재혁이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눈물을 흘렸지요. 재혁이를 가르치고 나서 저는 ‘경이롭다’는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는 교사가 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해 자신이 평소 믿어오던 신념을 어느 순간 교사가 흔들려 한다고 느낄 때 저항을 합니다. 재혁이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재혁이 어머니는 1년 동안 재혁이가 공부 습관을 배우고, 매일 공부와 친한 삶을 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전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갔습니다. 결국 교사의 듣기 좋은 말 한마디로 학부모와의 상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이라는 연장선 위에 학부모와의 관계가 놓이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벽처럼 여기면 그 벽은 결코 넘어설 수 없이 자꾸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면 어느새 스텝 열릴 것입니다.

‘손 수(手)’ 하니 꼼꼼하고 건강하고 레어하다



우리가 수제에 열광하는 이유



하루의 피로를 맥주로 풀고 싶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는 그저 그런 ‘병맥’, ‘켄맥’, ‘생맥’을 떠올리며 외쳤을지 모른다. “아무거나, 취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최근엔 달라졌다. 크래프트 맥줏집에서 하루 30잔만 파는 한정판 수제 맥주가 우리를 꼬인다. 지난 10년 사이 동네 빵집들이 똑같은 모양의 체인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목길에 작은 수제 베이커리가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고, 오픈 키친을 통해 빵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수제’의 귀환은 먹거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머니의 취미이던 손자수는 세련된 디자인의 와펜으로 부활하고 있다.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신사 스파이에 반한 청년들은 수제 양복점과 수제화 매장을 찾아간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고 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찌하여 ‘손의 맛’, ‘손의 멋’을 갈구하고 있는 걸까?

지난 100년 간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해일처럼 세상을 뒤덮었다. 공산품은 문명, 쾌적, 세련의 상징이었다. 집에서 힘들게 지어 입던 옷은 공장에서 만

들어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 옷으로 대체되었다. 나아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의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 전 세계인이 계절마다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게 했다. 패스트푸드와 커피 체인이 제공하는 햄버거와 커피는 산뜻한 도시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배송되는 유명 브랜드의 삼계탕, 어묵, 김치는 주방의 노동을 지워 주었고, 언제든 빠르게 한 끼를 때우게 해주었다. 주택가 주변을 뒤덮은 체인 식당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차례로 공장으로 떠넘겼고, 그것은 우리에게 노동 시간을 덜어내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과 체인점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제품은 오랜 시간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한다. 특히 채식, 이유식, 건강식 등을 이유로 재료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공장제 식제품의 문제점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수제 김

밥, 수제 베이커리, 수제 햄 등 직접 만든 먹거리가 다시 등장했다. 여기서 '수제'는 얼굴과 이름을 아는 가까운 곳의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의미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방부제나 첨가물 같은 유해 물질을 넣지 않고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수제는 안심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손으로 조금씩 만들다 보면, 누가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 맛과 향과 디테일이 달라진다. 표준화된 공장제 제품에서는 이것이 큰 결격이다. 그러나 수제품의 세계에서 이것은 '개성'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만들어낸다. 크래프트 맥주 장인은 그날의 날씨나 재료의 상황에 따라 매번 새로운 맛을 빚어낸다.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이다. 바게트도 마찬가지다. 밀가루, 소금, 물이라는 한정된 재료로 만드는 데도 가게마다 그 맛이 전혀 다르다. 물론 이런 수제품이 인기를 끈다는 의미는, 고객들의 수준이 미세한 맛의 차이를 분별해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손맛은 아는 사람만 알아준다.

수제 양복, 수제화의 세계에서 이미 특급 장인들이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각각의 옷과 구두의 주인은 저마다 몸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인들은 이에 맞추기 위해 꼼꼼하게 치수를 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옷과 구두를 짓는다. 그렇게 만든 제품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 뛰어난 성능과 희소성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발한다.

손의 가치는 귀하다. 누구든 직접 바느질을 하고, 재료를 다듬고, 여러 번 고쳐본 사람이 더 잘 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기도 한다. 손을 움직이는 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누구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성비 좋은 가죽 지갑을 살 수 있다. 수제품이 탐나면 주문해도 좋다. 그러나 나만의 가죽 지갑을 만들고 싶어 공방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꼼꼼히 바느질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냥 백화점에서 예쁜 것 하나 사는 것보다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내 손을 움직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손을 쓰다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가 오래 입거나 간직해온 옷이나 담요로 직접 인형을 만들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체취가 남아 있는 그 인형을 무엇보다 좋아한다.

때론 손을 쓰는 취미가 새로운 직업이 되기도 한다. 크래프트 맥주 전문점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박상재 대표는 대학원을 다닐 때 취미로 하우스 맥주를 만들던 실력으로 미국에서 열린 국제맥주대회(National Homebrew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직접 고쳐본 재미를 아는 이가 커스텀 자전거 솜을 여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지금 시대의 수제 트렌드는 1970~1980년대 세계적인 유행을 탄 DIY 운동과 닮은 듯 다르다. 이제는 인터넷, SNS, 3D 프린터, 공유 경제 등의 다양한 장치가 새로운 아마추어 수제 장인을 돕고 있다. 수제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은 자의 반타의 반으로 우리의 여가 시간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얻은 시간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만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보면 어떨까?





사람, 신, 예술이 어울려 빚어낸 신비의 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신이라는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이곳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창조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신이 이 아름다운 섬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세계를 다스리느라 고단한 자신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섬인지도 모른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대표 휴양지, 발리의 해변들

발리(Bali)는 한국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사랑받았지만, 최근 해변으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유명한 해변은 쿠타(Kuta)와 누사두아(Nusa Dua)이다. 발리 남부에 자리한 쿠타 해변은 1960년대 히피와 서퍼들이 몰리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쿠타의 바닷물은 생각했던 것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곳은 아니다. 쿠타 해변의 명성을 듣고 지중해나 피지의 바닥이 흰히 비치는 투명한 바닷물을 상상했다면 다소 실망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순백의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절경의 해안도 아니다.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이 해변이 유명한 이유는 오직 하나, 거침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이다. 호주와 유럽 출신의 서퍼들이 쿠타의 파도에 반해 하나둘 몰려들어 마침내 쿠타는 세계 최고의 서핑 포인트가 됐다. 쿠타 해변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친 파도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

누사두아 해변은 쿠타 해변에 비해 한적하고 로맨틱하다. 코코넛나무가 둘러쳐진 3.5km의 백사장을 따라 야외 테이블을 갖춘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또 고급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방해받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짐바란(Jimbaran) 해변 역시 아

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로맨틱 시푸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누르(Sanur) 해변은 발리에서 처음으로 해변 호텔이 지어진 곳이다. 지금은 전성기를 지나 쿠타와 누사두아 해변의 명성에 가려진 듯하지만 최근 들어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여행자보다는 현지인이 많이 찾는 이곳은 오롯이 자신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는 여행객이 더 선호한다.

순수 그 자체, 롬복

롬복(Lombok)은 발리의 옆 동네다. 비행기로 30분, 페리로 2시간 떨어져 있다. 오래전 상업화된 발리와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 묻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롬복은 생각보다 크다. 제주도의 2.5배 정도 면적에 약 250만명이 살고 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서쪽에 자리한 생기기(Senggigi) 해변.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진 곳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해 레스토랑과 숍이 많이 들어서 있어 활기가 넘친다.

롬복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 롬복은 19세기 초 발리의 통치를 받기 이전까지 마타람 이슬람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롬복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서쪽에 자리한 쟁기(Senggigi) 해변.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진 곳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해
 레스토랑과 숨이 많이 들어서 있어 활기가 넘친다.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곳이 사삭 빌리지(Sasak Village). 사삭족은 롬복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주민으로 발리인들 보다는 자바인과 흡사한 외모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사삭 빌리지에서는 사삭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현장을 관람하고, 전통 의상과 도자기, 악기 등을 직접 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롬복 중부 지역의 끄디리(Kediri)에 있는 토기 마을 바뉴물렉(Banyumulek)도 가볼 만하다. 게라바(Gerabah)라고 불리는 전통 질그릇을 만드는 마을로, 원시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어내지만 문양과 색깔이 무척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토기는 모두 수공업 형태로 사람이 직접 빚고 말린 뒤 색을 입히고 문양을 새겨 판매하는데, 관광객도 토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수카라레(Sukarare) 마을은 전통 직물로 유명하다. 150여 가족이 모여 사는데, 대부분 집에서 전통 베를 이용해 천을 짠다. 다양한 색실과 패턴의 조합

으로 만든 천은 화려한 문양을 자랑한다. 롬복에서는 결혼식 파티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이 직접 짠 천을 선물하는 것이 전통으로 어른들은 여자아이들에게 직물을 짤 수 없다면 시집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다. 보통 혼자 1.2×2m 크기의 직물을 만드는데 대략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정성이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다.

천국의 또 다른 이름, 길리

롬복 북서쪽에 자리한 '길리 3형제'가 있다.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길리 메노(Gili Meno), 길리 에어(Gili Air)가 그것들인데, 이 세 섬은 오직 '여행을 위한, 여행자만을 위한 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섬 베스트 3',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세계 10대 최고의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을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세 섬 중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섬은 길리 트



에메랄드빛 바다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작고 예쁜 카페와 바, 클럽, 레스토랑이 해안 주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다. 여행자들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타를 튕기고 노래를 부르며 느긋하게 시간을 즐긴다. 여행자의 80%가 장기간 여행하는 이들이다.



여행정보



한국에서 발리까지 가는 직항편이 많다. 발리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이나 페리를 타고 롬복으로 가면 된다. 국내선 항공편을 타고 자카르타에서는 2시간, 발리에서는 20~30분이면 롬복에 닿는다. 길리에 가기 위해서는 발리 국제공항에서 페리 터미널(4곳)로 이동해 페리를 타면 된다. 페리 티켓을 현지 여행사에서 구입하면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픽업해준다. 게스트하우스의 하루 숙박 비용은 2~3만원이고, 해변가에 저렴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많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섬을 돌아볼 수도 있다. 자전거 빌리는 데는 5천원 정도 든다. 라부안 바조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외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숍이 많다.

라왕안이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작고 예쁜 카페와 바, 클럽, 레스토랑이 해안 주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다. 여행자들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타를 튕기고 노래를 부르며 느긋하게 시간을 즐긴다. 길리 여행자의 80%가 장기간 여행하는 이들이다.

길리는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바닷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다양색의 열대어와 산호초를 만날 수 있어 굳이 스쿠버다이빙이 아니어도 바닷가 한편에 자리한 스노클링 장비 대여점에서 고글과 오리발을 빌려 50m만 헤엄쳐 나가면 화려한 수중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밤이 되면 길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낮보다 더 북적이다. 여행자들은 빈탕 맥주를 손에 들고 길리의 밤을 즐긴다. 야시장에서 인도네시아식 꼬치구이인 사테(Sate)를 들고 맥주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들쭉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간, 영감(靈感)의 만찬

누구나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쯤은 있다. 그곳에선 편히 호흡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안식처. 그러니 천재 예술가들에게 특히 사랑받은 '공간'이란 밥보다 중요한 '생존의 근거'이고 집보다 아늑한 '존재의 터전'이다. 그곳은 예술적 영감(靈感)의 만찬장과도 같았다. 시대를 풍미한 유별난 감수성을 가진 이들과 환희와 웃음, 눈물로 얼룩진 오욕칠정(五慾七情)을 나누며 마침내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킨 특별한 장소에 대한 짧은 보고서.

“한낮의 산은 뜨거운 공기 때문에 달아오른 양은 냄비처럼 들끓고 있었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가 구멍처럼 보일 정도로 미광(微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풍경 속의 붉은 기운이 신전마다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쪽빛 바다 너머로 신전의 대리석은 청동색을 띠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잘 구운 진흙과 같은 갈색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이토록 변화무쌍한 단색을 본 적이 없다. 손에 잡힐 듯 다가오는 신전의 모습에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중략) 위대한 신전 파르테논이나의 정신을 아득하게 하고 마침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동방 기행>(다빈치) 중

20세기 초반 건축사를 장식한 천재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알프스 대자연을 품은 스위스에서 태어나 근대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 인생을 보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라쇼드퐁(La Chaux-de-Fonds)에서 태어나 자라며 쥐라산맥의 자연을 품은 고향 땅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눈을 뜬 르 코르뷔지에. 이 같은 성장 배경은 그의 건축 인생 전반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 라쇼드퐁이 이제 막 떠오르는 일출이었다면, 10대 후반~20대 초반 경험한 동방 기행은 그에게 한낮에 내리쬐는 장렬한 태양과도 같았다. ‘동방’ 하면 많은 이가 아시아를 떠올리지만, 서유럽 출신인 그에게 동방은 그리스와 헝가리, 세르비아를 잇는 동유럽, 터키 등지를 말했다. 마치 성지순례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고 훗날 건축가로서 큰 영감(靈感)을 준 곳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다. 세월의 풍화를 견디며 언덕 위에 당당히 자리한 우뚝빛 신전과 그곳에서 있는 신들의 자태란... 고전 건축의 날카로운 미의식과 정교한 과학적 사고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성반도를 훑힐 날이면 그 끝자락이 통영이지. 먼저 안띠산(안뒀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남망산과 세병관, 미륵도가 한눈에 보여.” 1917년 경남 통영 태생,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애국가의 작곡가 윤이상. 요즘 사람들에게 통영은 맛집 즐비하고 풍광 아름다운 해안 도시지만, 윤이상에게 통영은 생각만 해도 가슴 절절한 고향 땅이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밟고 싶었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향수(嚮愁)의 공간. 윤이상의 일대기 <나비의 꿈>을 집필한 소설가 윤정모는 윤이상 선생이 고향 통영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밤마다 꿈길로 오곤 했다고 했다.

“미륵봉에서 내려다본 바다와 거기에 떠 있는 섬들의 배치도는 정말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같아 보였다. (중략) 그가 우주의 음률을 들었다던 바위는 태백산의 한 줄기가 뻗어오다 중생대 마지막으로 불끈 솟아오른 미륵도의 끝자락 바위다. 구멍이 승승 뚫린 바위. 이 집피암에서 80여 년 전 한 어린 소년이 우주의 음률을 들었다고 했다. 바람이 휘파람을 불면 바다는 폴피리처럼 울리면서 서로 응답했다. 그 신비한 언어가 소년의 몸을 태워 두동실 떠돌릴 때 어디선가 깊은 울음 같은, “우웅, 이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그 소리는 가는 명주실처럼 맑고 투명한 음률로 나뉘면서 저마다 독특한 소리로 연주를 하더니 다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소년의 앞가슴으로 쏟아졌다.”

- 윤정모,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2007년 11월 호 기고 중.



윤정모 작가는 이어 말한다. “그래서 윤이상은 생전 한사코 남북 통합을 주창한 것일까. 또 장자(莊子)의 <호접몽>을 빌려 1968년 ‘나비의 꿈’을 작곡하면서 그 속에 우주의 음률을 삽입한 것은 꿈과 생시도 결국 하나라는 암시였던 것일까.”

자신의 고향에서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친 이도 있다.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앤서니 퀸이 주연한 <길>을 포함해 <달콤한 인생> 등 영화광 사이에 성서처럼 받아들여지는 명작을 탄생시킨 거장이다. 1920년 이탈리아 동부 해안가의 리미니(Rimini)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19세에 로마로 상경, 네오리얼리즘의 거장 로베르토 로셀리니(배우 잉리드 베리만의 남편이자 세계적인 화장품 랑콤의 모델로 유명한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아버지) 밑에서 활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와 늘 함께한 도시는 언제나 로마였다. 수천 년 전 로마제국의 영광과 20세기 전쟁과 새로운 문화혁명이 태동하는 이 도시의 용광로 같은 에너지의 틈바구니에서 젊은 감독은 이 도시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의 대표작 <달콤한 인생>의 배경은 당연히 로마. 이 작품에는 무솔리니가 몰려난 이후 도시가 구가하던 자유와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담아냈다. 시골에서 로마로 이주한 한 남자의 삶을 다룬 1972년 작 <로마>는 아예 그의 자전적 이야기다. 비아 마르구타 거리와 스페인 계단 주변에 있는 그의 생전 거주지와 그가 산책하던 포폴로 광장까지, 로마 토박이는 아니지만 펠리니는 누구보다 로마를 사랑했고 그가 도시 곳곳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영화광은 물론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영감(靈感).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과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삶이 환희로 가득한 꽃길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자고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면, 그 눈물은 예술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남달리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찬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누군가에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배불리 밥을 먹고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평범한 삶의 터전에서 예술가들은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북돋아주는 무언가를 발견하곤 했다. 그들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차려낸 예술의 만찬을 오늘날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와 공간들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이다.



환절기, 세상 쉬운 목 관리 방법

여름내 지속된 더운 날씨와 달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목전에 찾아왔다. 더위를 식혀주는 선선한 바람이 반갑기도 하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에 목감기를 비롯해 인두염이나 편도염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교사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목 관리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찾아온 불청객, 목 통증

우리 몸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성대다. 성대는 보통 1초에 남성 120~150번, 여성 200~250번 정도 진동하면서 소리를 낸다. 이처럼 많이 진동해도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성대 점막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목소리가 쉬게 된다. 보통 말을 많이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피로를 쉽게 느끼고, 특히 환절기에는 성대 점막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 목소리가 변하기 일쑤다. 답답함과 육신육신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도 모자라 루이 암스트롱도 울고 갈 쫄소리 때문에 고생하는 교사가 한둘이 아니다. 모두 건조한 날씨 탓이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건조한 날씨는 우리 몸 구석 구석을 마르게 한다. 손이나 얼굴의 피부는 핸드크림이나 고보습 크림으로 어찌 해결해볼 수 있다. 하지만 목 깊숙이 자리한 성대의 건조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성대 전용 크림이 나오지 않으니 손이나 얼굴처럼 화장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습 방법은 없을까?

촉촉한 성대를 위한 솔루션

성대의 건조함은 꼭 환절기의 건조한 날씨만이 원인이라 할 수 없다. 평소 발성 습관이 잘못된 사람이나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큼 목이 잘 쉬는 것은 물론 편도염과 후두염 같은 목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환절기 목 관리는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 중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실내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정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직접 실내의 온·습도를 조절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나, 찬바람이 불면 스카프를 준비하는 센스!

찬바람은 목감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만큼 목은 늘 따뜻하게 보호하자. 환절기 목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 때는 목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스카프나 손수건을 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스카프나 손수건을 휴대해 다니는 센스가 필요하다.



넷, 양치질 잘하기

칼칼한 목과 양치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기관지 건강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구강 청결이다. 특히 구강은 기관지와 연결되어 세균이 직접적으로 드나드는 신체 기관 중 하나다. 그 때문에 구강 청결은 기관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절기 목 관리를 위해 평소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세 번 하는 식후 양치질뿐만 아니라 간식을 섭취한 후에도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글을 대신 해도 된다.



둘,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

목이 칼칼하다는 것은 기관지 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 기관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환절기 목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목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자기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다 (몸무게X0.03=하루 권장 물 섭취량). 평균적으로 하루 2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하루 동안 물 2L를 마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함정이 있다. 텀블러나 작은 물통을 항상 옆에 두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목과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물오른 피부는 덤으로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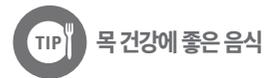
다섯, 절대 금연!

백해무익한 담배는 기관지뿐 아니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담배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은 폐의 정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흡연의 유해함이 어디 이뿐이랴? 흡연은 폐 세포를 파괴하고 호흡 기능 저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자

환절기에는 심한 일교차 때문에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는 곧 목감기나 편도염의 원인이 되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절기 목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평소보다 채소와 과일을 자주 챙겨 먹자.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크다. 그리고 가공적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맵고 짠 음식은 목속 수분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



목 건강에는 당근이지

당근에는 비타민 A C K와 섬유질,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목이 아플 때는 당근을 익혀 먹는 게 좋다.

이러니 바나나에 안 반하나?

바나나에는 비타민 B6 C,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감이 부드러워 넘기기 쉽고 신맛도 없는 만큼 목을 자극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꿀팁

목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최고 좋은 것은 꿀차다. 꿀은 항생, 항균 작용이 탁월해 염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목 아파? 그럼 양파!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도에서 점액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나 목이 아플 때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저축, 안정적 연금 수령과 목표 자금 마련의 출발점

젊은 교사들이 재테크를 하는 데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현 시점에서 퇴직하는 선배 교사들의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비슷하게 적용받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보니 공무원연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60세 퇴직 이후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에 눈을 뜨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개정된 연금법 정보

재테크 계획을 세워라

계획적 재테크의 시작은 절약과 저축이다. 이 중 저축은 크게 안정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퇴직 및 개인연금', 저축보험 등 장기 저축 상품과 목표 자금 마련을 위한 예·적금 위주의 '중·단기 저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후 대비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인지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대략 살펴보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내고 적게 수령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입액, 즉 기여율을 기준소득 7%에서 9%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이 350만원인 경우 7%를 적용하면 24만5,000원이지만 9%를 적용하면 31만5,000원으로 매달 납입금이 많아진다. 참고로 기준소득은 과세소득의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연금을 받게 되는 지급률도 인하되어 2016년 1.9%를 시작으로 2035년 1.7%로 떨어진다. 30년 재직자의 경우 기준소득 350만원에 1.9%를 적용하면 200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1.7%를 적용하면 그보다 적은 178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젊은 교사나 공무원일수록 수령 액수가 현저히 줄어 노후를 연금에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테크에 임해야 한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도 달라진다. 2022년 61세로 시작해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늦춰지다 보니 40세 전후의 교사나 공무원은 연금을 65세부터 지급받겠다고 보면 된다. 이외에도 연금을 납입하는 재직 기간을 현 33년에서 36년으로 늘리고, 유족연금지급률도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로 하향 조정했다. 보통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교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축 상품은?**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 즉시연금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보험은 일정 납입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불입한 후 정해놓은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다. 일정한 이자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큰 게 장점이다. 그러나 소득공제는 납입 기간에만 적용받고, 비투자 상품으로 안전성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3.3~5.5% 이연과세 때문에 노후 준비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에 더 적합하다. 변액연금은 연금에 투자 기능을 합친 상품으로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하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장점이다. 변액연금 선택 시에는 운영사의 수익률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자칫 수익률 저조로 사업비까지 부담하고 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즉시연금은 연복리 상품으로 큰 목돈은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 필요하고 목돈을 넣어놓으면 매월 이자를 받은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연금이나 보험은 장기 상품이어서 중도 해지하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직원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활용하면 연금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 시까지 꾸준히 납입만 해도 시중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장기 복리 투자가 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인데 장기저축 급여율이 올해 기준 3.6%이니 3배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불어난 목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나눠 수령할 수 있고, 연금식 분할 수령의 경우 연복리 2.8%라는 높은 이자율도 적용받는다. 또 분할 급여금에 대해서는 시중 금융권 3.3~5.5%의 연금소득세보다 낮은 0~3.46% 이내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같은 장기저축 상품이어도 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처럼 보험회사 상품이 아닌 만큼 사업비가 나갈 걱정도 없다.

장기저축과 병행해 주택 마련이나 자동차 구입, 결혼 준비, 학비 같은 단기 자금 마련과 여윌돈 운영을 위해서는 중·단기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시중 금리를 초과해 다소 높은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축 상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임 교사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형저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내외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2년 이상 가입 시 시중 금리보다 높은 1.8% 내외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말정산 혜택도 있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개발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병행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최근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연간 급여 5,000만원 미만 교사의 경우 7년 이상 보유 시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금리가 3% 내외여도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높아 매력적이다.

다음으로 여유 자금이 많은 시니어 교사들의 경우 국가적 혜택인 비과세종합저축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가입 조건이 제한되어 올해는 만 63세, 내년에는 만 64세,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된다. 은행의 예·적금뿐 아니라 증권사 주식배당 소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현존하는 최고의 저축 상품이라고 추천한다. 이외에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는 예탁금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 신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지역 농협, 축협, 수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1만~5만원의 회비를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만하면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자산 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목적 및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면 중·단기 저축 비중을 높이고 전문가의 도움과 안정이 절실하다면 연금 등 장기저축 비중을 높여 적절히 분배해나가면 된다.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자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20여 회 방송 출연을 했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 중이다.



창간 기념 이벤트

<The-K 매거진> 창간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창간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The-K 매거진> 앱을 다운 받아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46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



해외여행 2인 상품권

겨울방학에 떠나는 광 3박 5일
해외여행상품권 1매(동반 1인 포함)
1인당 150만원, 총 300만원 상당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출발일 2018년 1월~2월까지

2등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 5매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3등



화장품 기프트 카드
10만원권(모바일) 10매

4등



패밀리 외식통합이용권
5만원권(모바일) 30매

5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모바일) 500매



- + 참여 기간 2017년 9월 1일~28일
- + 참여 방법 <The-K 매거진> 앱을 다운 받습니다 ... 최초 실행 시 이벤트 참여 팝업이 열립니다 ... 참여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당첨 상품 확인 후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상품 배송지 주소, e-mail 등)을 입력합니다 ...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첨되길 기다립니다
- + 당첨 발표 10월 17일(한국고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당첨자 게시 및 개별 연락)



9월 즉석 당첨 이벤트

이벤트 기간 9월 1일~25일

QR코드로 바로 당첨을 확인하는 <The-K 매거진>만의 이벤트!
총 3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100매

문화 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200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참여 방법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9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미기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직1Life

당뇨·고혈압에도 가입 가능한 보험 교직원라이프 ‘간편가입공제’ 인기

40대 중반의 A씨.

오래 전 가입한 보험이 65세 만기라 새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3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경력이 신경 쓰인다.

7년 전 위암 수술 경력이 있는

50대 초반의 B씨. 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지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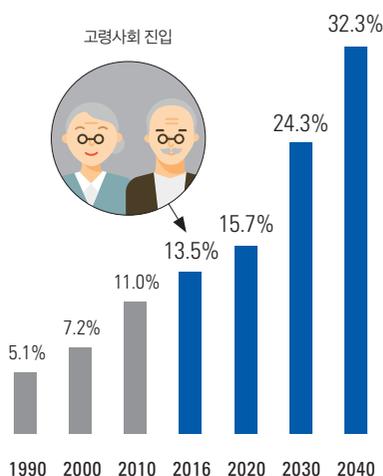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 중인

60대 남성 C씨는 이미 두 차례나 보험 가입신청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나이들수록 아플수록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은 젊고 건강한 사람을 가입자로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비대칭’을 다소 해소해줄만한 보험을 지난 7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시했다.

‘교직원라이프 간편가입공제’(이하 간편가입공제)는 고령·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 보험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높아진 질병 발생률에 뒤늦게나마 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고령과 만성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자 3명 중 1명, 성인여자 4명 중 1명이 비만과 고혈압에 해당한다. 당뇨 환자 비율 역시 10%를 훌쩍 넘는데, 그만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 쉬운 인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픈 것도 속상한데, 여기에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환자는 물론 가족의 어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 전체 생활비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 이상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되는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를 유발하는 주요 질병 중 당뇨와 고혈압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47.6%에 달한다고 한다. 간편가입공제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 설계된 상품이다. 보험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요건을 매우 간단히 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했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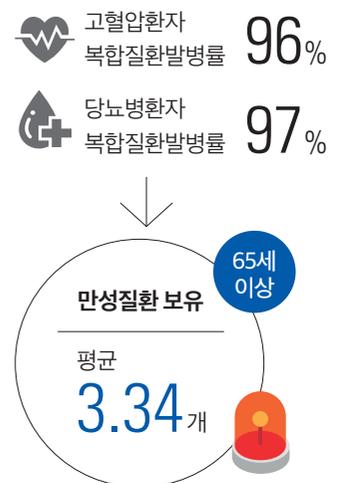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2016년 이후는 추정치)

생애 주기별 1인당 의료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수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간편가입공제 상품구조

상품구분	급여종목	가입나이	갱신주기	보장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급여	암진단	건강관리 자금형				
	소액암진단					
선택 특약	정기특약	소멸형	40~80세	최초계약 15년 갱신계약 10년	최대 100세 (단, 정기특약 및 중증치매 진단특약은 최대 85세)	전기납
	입원특약					
	수술특약					
	중증치매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교직원3대만성질환 치료특약					

주급여 건강관리자금은 최초계약에 한하며, 갱신계약은 소멸형으로 운영
 소액암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간편가입공제 보장내용



간편가입공제 가입조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無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력
 無

5년 이내
 암진단·입원·수술력
 無

간편가입공제는 3가지 요건만 확인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왼쪽과 같은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복잡한 서류제출과 심사를 생략한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기존 중·장년 세대를 위한 보험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대신 가입했던 것과 달리, 간편가입공제는 출시 후 50~60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령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연령이 넉넉한 것도 눈에 띈다. ‘간편가입공제’는 40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초 계약 시에는 15년 뒤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75세에 가입하면 단 한 번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수의 비슷한 민영보험사 상품이 7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 최초 계약 시에는 질병 진단 유무에 관계없이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유병자가 꼭 필요로 하는 보장 위주로 특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알차게 설계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암진단을 보장하는 주급여에 입원, 수술, 중증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특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간편가입 방식으로 중증치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은 민영보험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까닭에 치매로 인한 노후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다수의 민영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20~50%만 지급하는 유방암과 전립선암도 일반암과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암보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챙겨볼만 하다.

The-K 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소피아그린,



그린에 수놓은 여주의 詩

7월 31일,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소피아그린C.C이 변신을 꾀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초록의 대지 위에 역사와 문화, 인물을 담은 것.
마운틴코스는 '세종코스'로, 레이크코스는 '여강코스'로,
밸리코스는 '황학코스'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주의 인문(人文)을 담은 그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종코스는 여주 영릉에 잠들어 있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의 정점인 한글창제를 기리고, 그 뜻을 되살리는 마음으로 채웠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홀 이름을 보자면 누리, 다솜, 더기, 마루, 송알, 아람, 우금, 하니, 한울로 순 우리말 이름으로 구성했다.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잊혀지지 않고 날로 쓰이어 후세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여강코스는 여주의 문화유적을 소재로 했다. 여강은 남한강의 옛 이름으로 예부터 여주에는 경기 제일의 농경문화를 꽃피운 산하와 중요 지점마다 여러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홀 이름은 파사, 매산, 고달, 영릉, 중암, 청심, 신록, 영월, 혼암으로 여강의 120리 뱃길을 따라 물이랑을 내 듯 따라가는 아홉 개의 홀을 접할 때마다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황학코스는 여주의 중심에 있

는 황학산을 소재로 여주의 역사적 인물들로 구성했다. 여주 태생이거나 여주와 관련 깊은 역사적 인물 아홉 분의 이야기를 녹였다. 서희, 백운, 목은, 매죽, 우암, 반계, 명성, 창의, 목사의 이야기를 그린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그린에서 추억을 선물하다

소피아그린이 새롭게 그린을 구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07년 5월 그랜드오픈을 시작으로 개장 11년 차를 맞이한 소피아그린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던 터. 노후한 시설물 교체 및 다른 골프장과의 차별화를 꾀했으며, 더불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로서 교육과 관련된 이미지를 원하기도 했다. 그러한 이유로 세종인문도시 여주만의 이야기를 골프장 코스와 홀에 녹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린에 스토리텔링을 입혔을까? 이 물음에 송동호 영업전략팀장은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말

소피아그린 홀 안내

- 세종코스
par 36/3,204m
- 여강코스
par 36/3,148m
- 황학코스
par 36/3,229m



한다. “소피아그린은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면서 여주와 관련된 문화를 함께 느끼길 원했습니다. 예로 세종코스 각각의 홀 설명에 훈민정음의 어제를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찾아보시는 재미와 함께 즐거운 추억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소피아그린의 강점은 스토리텔링만이 아니다. 바로 코스 관리다. 소피아그린을 방문하는 골퍼들은 페어웨이 잔디가 아주 촉촉하고 빈틈이 없다고 말한다. 군데군데 자생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조경 역시 빼어나다. 또한 골프대중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중제로 오픈했지만 교직원공제회원을 맞이하다보니 서비스 응대가 매우 좋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열리다

7월 31일에는 소피아그린이 주최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후원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행사도 열렸다. 8월 2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총 378팀 1,512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일에서 3일로 1일 연장 운영을 시행해 더 많은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최정희 회원은 포토월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작년에도 참여했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아 올해도 신청했다. 즐겁게 라운딩하고 가겠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클럽하우스 앞 스타트광장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라마다프라자 제주), The-K교직원나라, The-K서드에이지, The-K손해보험 등 그룹 산하의 여러 출자회사가 홍보이벤트를 준비해 기념품을 전달했다. 코스 내 The-K이벤트도 운영됐는데, 당일 홀인원 및 이글을 기록한 회원에겐 선물과 그린피 이용권을 증정하도록 했다. 김준형 소피아그린 영업전략팀 대리는 “올해는 아쉽게도 홀인원을 기록한 회원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내년을 기대해본다”고 뜻을 전했다.

티오프(Tee-Off) 1부는 6시부터 8시, 2부는 12시 20분부터 14시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여강코스 1번 파사홀에서 티오프를 마친 조규남 회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소피아그린 덕분에 동료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공제회원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흥열
The-K소피아그린 대표이사
소피아그린은 회원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라운딩의 추억, 웃음만 가져가십시오. 소피아그린은 회원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다가갑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여러분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 소피아그린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ass 제도 운영

- B BLACK** 16회 이상 라운드
- B BLUE** 11회~15회 라운드
- W WHITE** 6회~10회 라운드
- R RED** 3회~5회 라운드
- G GREEN** 인터넷 가입 ~2회 라운드

고객 개인별 내장 횟수에 따라 그린, 레드, 화이트, 블루, 블랙 Class로 총 5단계로 운영되며 매월 초 등급에 따라 그린피 할인권 및 면제권, 식음료 등 부대업장 할인권을 쿠폰 형태로 제공합니다.

문의 031-887-8100



연말까지 The-K 행복서비스와 함께



방향으로 학교는 고요함에 빠져들었지만, 교직원공제회원을 위한 'The-K 행복서비스'는 여름 내내 멈추질 않았다.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천안, 춘천, 광주, 서울서 모두 네 차례 '한여름 밤의 클래식산책'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1부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깊고 풍부한 선율이, 2부는 국내 최고 재즈보컬리스트인 웅산의 매력적인 노래가 한여름 밤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서희태 지휘자의 깊고 재미있는 설명과 'SHALL WE DANCE?'라는 공연의 부제에 걸맞은 무용수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무대를 한층 더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회원이 부르는 곳도 찾았다. 7월 20일과 27일에는 전북 정읍의 동화중학교와 강원 인제의 방산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행복나들이'가 열렸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는 교직원공제회가 학교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콘서트, 드로잉쇼, 뮤지컬 등을 즐기는 행사다. 9월에는 경인교대를 찾아가 팟캐스트 방송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과 함께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속이 뽕 뚫리는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 지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영화, 스포츠,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지난 2011년 'The-K 행복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에만 25만명의 회원과 그 가족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올해에도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 최신작의 영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씨네&Joy, 공연·전시 행사로 아름다운 감상을 선사하는 문화심터樂, 퇴직한 회원을 위한 은빛동행 등 다채롭고 알찬 행사가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뮤직&Joy,

올림픽공원서 '파크콘서트'로 찾아가



9월 9일과 10일 뮤직 & Joy가 '파크콘서트'로 회원을 찾아간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 붉은 노을과 함께 음악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

마당에 1300명의 회원을 초청한다. 9일은 '쥘레꽃'으로 유명한 소리꾼 장사익이 장사익소리판 친구들과 함께 흥겹고 감동 있는 가락을 들려준다. 10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오리지널 싱어즈의 목소리로 만나는 디즈니 인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디즈니 인 콘서트에서는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피크닉석을 제공해 회원이 보다 여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뮤지컬,

재즈패스티벌, 무용 등 펼쳐져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심터樂'을 통해 2017 무민 원화전, 뮤지컬 캣츠,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카르멘(무용) 등에 회원과 가족 1700여 명을 초청한다. 9월엔 북&Joy도 개최된다. 이밖에 최신 영화 관람권을 증정하는 씨네&Joy, 축구·농구 등 경기에 초청하는 스포츠&Joy, 퇴직회원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은빛동행이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또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신청하면 The-K 행복서비스를 비롯해 교직원공제회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하나교직원복지카드 리뉴얼 출시

마트·학원·통신비 등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하나금융그룹의 전략적 제휴로 2012년 출시된 하나교직원복지카드가 최근 리뉴얼됐다. 지난 3년간 이용금액이 가장 큰 주유, 대형마트, 전화요금, 온라인쇼핑, 백화점, 병원, 보험 등의 업종을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게 분류해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카드로 리뉴얼 한 것. 새로운 카드는 세 종류다. ▶주유·학원에 특화된 Living ▶마트·백화점에 특화된 Shopping ▶주유·학원·마트·백화점 혜택을 모두 포함한 All-in 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세 카드 모두 월 1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주유, 학원, 마트, 백화점 등의 적립 영역별로 5000원씩 하나머니가 적립되며, 적립된 하나머니는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와 통신비, 대중교통 사용요금도 전월 사용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만 납부해도 손쉽게 다양한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 기간인 내년 6월까지 월 10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상당의 주유쿠폰이 1회 제공되며, 처음 이용 시 하나머니 1만원이 적립된다. 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회 회원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발급신청 0504-3174-2300



“은사님과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하세요”

‘불꽃 패키지’ 캠페인 9월18일까지 응모

교직원공제회는 9월 18일까지 ‘불꽃 패키지’ 캠페인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불꽃 패키지’ 캠페인은 제자와 은사가 함께 9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7’을 관람하며 사제 간 특별한 추억을 쌓는 행사다.

교직원공제회는 그동안 제자를 닮은 피규어 인형을 만들어 은사에게 선물하는 등 사제 간의 소중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왔다. 이번 불꽃 패키지 캠페인은 한강 유람선 위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탐승권을 증정해 참여한 회원이 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점이 돋보인다. 응모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은사와의 추억 등 간단한 사연을 입력하면 된다. 동영상 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불꽃 패키지 캠페인 동영상을 감상한 뒤 페이스북·카카오톡·블로그 등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 지난 5월 공제회가 주최한 ‘사제시간, 그 아름다운 동행’ 행사 장면

‘문해의 달’ 시화전 등 행사 후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인 9월에 맞춰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시화전과 시상식 등 교육부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후원한다.

문해교육 시화전은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대국민투표를 통해 시화전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문해교육 시화전을 후원하고,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야학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문해교육 활동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참나눔봉사단 ‘라파엘의 집’ 찾아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참나눔봉사단은 지난 7월 14일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 여주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나눔봉사단원들은 직업재활센터 등을 방문해 산책보조, 환경미화 등 활동을 진행했다. 참나눔봉사단은 2009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무료 급식봉사 등 매월 1회씩 봉사활동 중이다.

미소누리 최초대여 인터넷 신청 가능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을 위한 제도 ‘미소누리 최초대여’를 앞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제회 시·도지부 내방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미소누리 최초대여는 지난 2016년 4월 출시된 ‘The-K 복지누리대여’ 제도 중 하나다. 연 2.99%의 저금리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어 아직 신용도가 낮은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주거독립을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The-K 복지누리대여에는 이밖에도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출산대여’가 있다.

☎ 문의 1577-3400



The-K손해보험,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 접수

The-K손해보험은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특화서비스'를 올 하반기에도 이어서 펼친다. 우선 2015년 처음 선보인 이래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아온 '차량무상점검 서비스'의 경우 9월부터 서울·경기·부산·대구·강원에서 진행된다.

차량무상점검을 신청하면 정비업체가 초·중·고를 방문해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배터리, 각종 오일류 등 20여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한다. 또한 무상점검서비스를 받은 교직원에게는 와이퍼 무료 교환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에듀카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당 차량 1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역별 학교 방문

차량 점검 서비스 일정

	9월	10월	11월
서울·경기	√	√	√
부산	√	√	
대구	√	√	√
강원	√		
울산			√

또한 The-K손해보험이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 중인 **교통안전교육**도 이어진다. The-K손해보험 사내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현장감 넘치는 교육으로, 학생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법 및 대처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 문의 02-6670-8058 (차량무상점검)

02-6670-8055 (교통안전교육)



The-K호텔과 함께하는 가을

한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전국 The-K 호텔에서 가을 패키지를 내놨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The-K호텔서울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레드 어텀(Red Autumn) 패키지를 10월말까지 선보인다. 객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이 제공되는 패키지 A를 비롯해 총 3종이며 가격은 12만9000원~18만원이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 더파크는 The-K 매거진 창간을 기념하여 특별 할인권(주중 및 일요일 점심·저녁)을 9월 20일까지 판매한다. 가격은 3만5000원이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문의 02-571-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시설을 갖춰 가을 나들이객을 위한 최적의 숙소로 꼽힌다. 오는 9월 10일에 열리는 국제 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지정숙박업소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별초를 한 고객이 별초하는 사진을 프

론트에 제시하면 투숙객에 한해 온천 2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 문의 061-783-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제주 지역 으뜸시설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공제회원을 위한 '폴 인 제주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조식 2인, 스포츠센터(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2인 이용권 구성에 미니바, 델리 이용권,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할인권 등의 추가 혜택까지 제공된다. 가격은 21만원이다.

☎ 문의 064-729-8100

The-K호텔경주는 9월 한 달 동안 '가을마중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공제회원은 정상가보다 55% 할인된 10만1000원~12만4500원에 이용가능하다. 이밖에 추석을 맞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가위 특선 패키지'도 판매한다. 가격은 13만5000원~16만원이다.

☎ 문의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초·중·고교 대상 수학여행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전 객실 방송 시스템, 곳곳에 설치한 CCTV, 24시간 경비순찰을 통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행을 하는 경우 산악 구조대 소속 가이드도 동반한다. 1인 2박 6식 기준으로 5만원이며, 교육단과 레크리에이션 행사는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 문의 033-639-8100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손해보험

The-K 손해보험은 선생님을 위한
좋은 생각만 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바른 생각

The-K 손해보험

educar 에듀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현재와 미래, 각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장편스토리

오늘의 전개와
내일의 클라이막스
언젠가의 엔딩 크레딧까지도

당신의 매 순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하겠습니다

